

명품코리아!

'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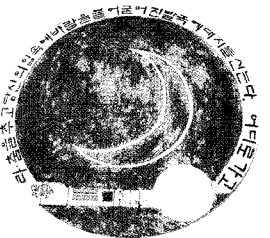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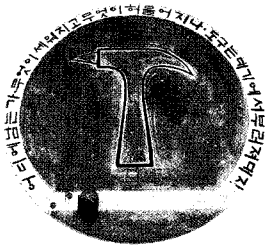
폐광촌에서

예술촌으로

가답난

철암역을

가다



우연히 지나치다 감동을 받게 되는 것과 감동을 사전에 준비하고 마주한 것과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인사동 · 시간동 · 청담동이 예술가 · 수집가들끼리의 닫힌 공간이라면 태백의 철암은 일반인과 지역주민 등  
예술가들에 길들여지지 않은 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 이라고 할 수 있다.

폐(廢) 탄광촌 철암역을 예술마을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할아텍' 사람들 작가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일들을 통해 힘을 얻고, 작품은 이들의 새로운 생명력을 안고 태어나고 있다.

글/사진 · Willy기자



할아트은 2001년 서용선·이경희·류장복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비정형 비법인 단체이다. 이들은 2002년 우연한 기회에 철암을 발견한 뒤 '철암 그리기'라는 이름으로 매월 셋째 주 정기적으로 그곳을 찾아가 작가마다 자신의 장르로 철암 석탄산업 문화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11월 22~23일에는 그 횟수가 86차에 이르렀다.

이들은 철암역사에는 갤러리를 구와우 마을에는 갤러리와 야외 조각공간을 만들어 그동안의 작업결과를 전시하고 있다. 서용선, 류장복, 이강우, 이경희, 배석빈, 장성아, 한웅진, 임홍 등이 참여해 철암역전과 대형 콘크리트 옹벽과 인근 상가건물 벽에 철암과 석탄을 소재로 한 대형벽화 등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철암역인근에 있는 대형벽화 기억의 벽이 이들의 대표적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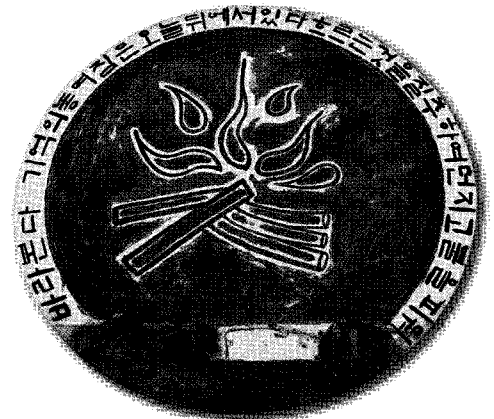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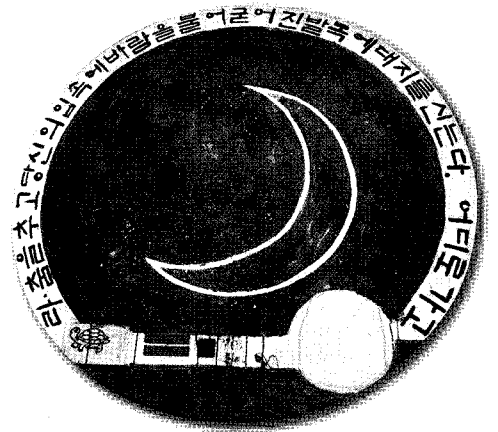
또한, 지난해부터는 보다 가까운 예술을 전하기 위해 현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학교를 열어 그림그리기, 미디어아트, 집짓기, 영화 만들기, 한자공예 등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회원이 30여명이며 후원회원만도 1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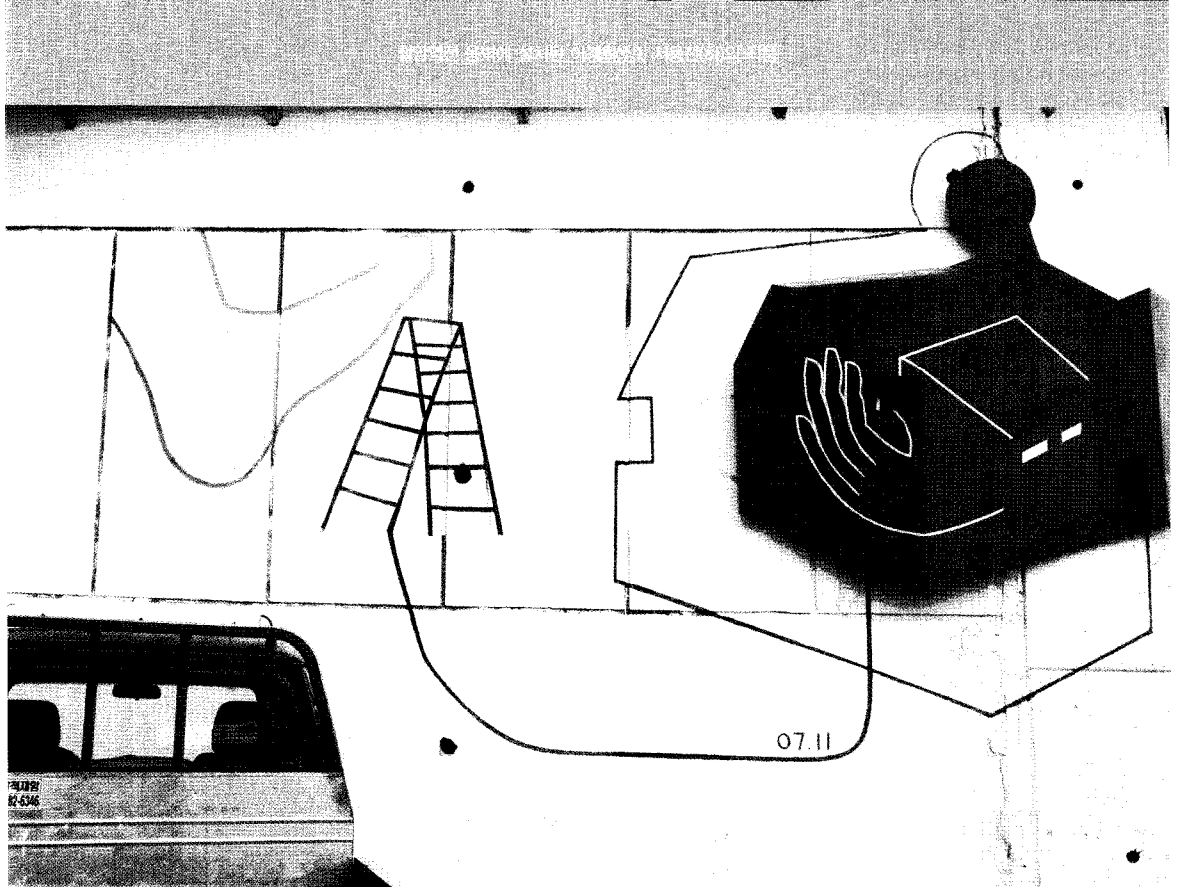
“철원에는 대도시가 짜놓은 틀이 없기에 이곳에서는 틀에 맞춰진 지식 이 쓸모없어지면서 스스로를 객관화하게 되고 작업은 새로운 출발점에 놓인다”고 설명하는 서용선(서울대 미대 회화과 교수)씨는 “틀의 부재가 작가의 기능과 역할을 팽창시키는 것 같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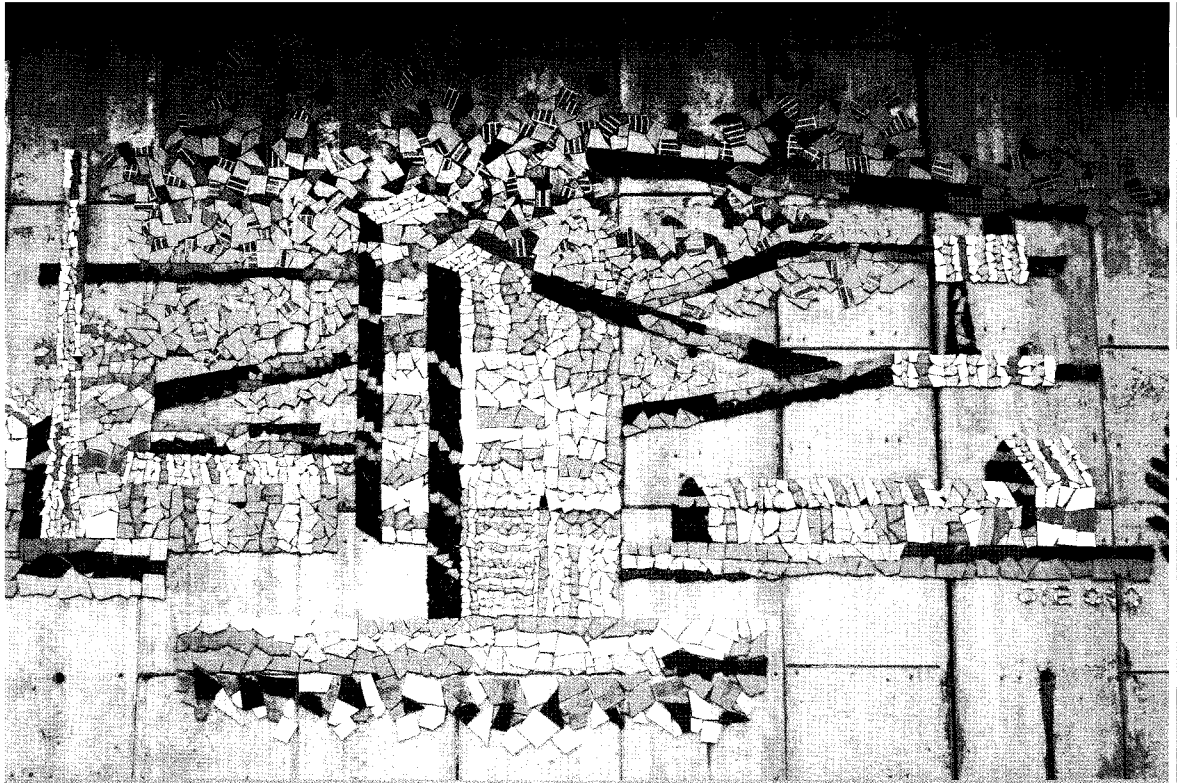
### 그렇다면 이들은 왜 철암을 선택했는가?

철암의 중심은 철암역이라 할 수 있고 철암역의 핵심은 선탄장기에 이곳을 선택했노라고 할아트 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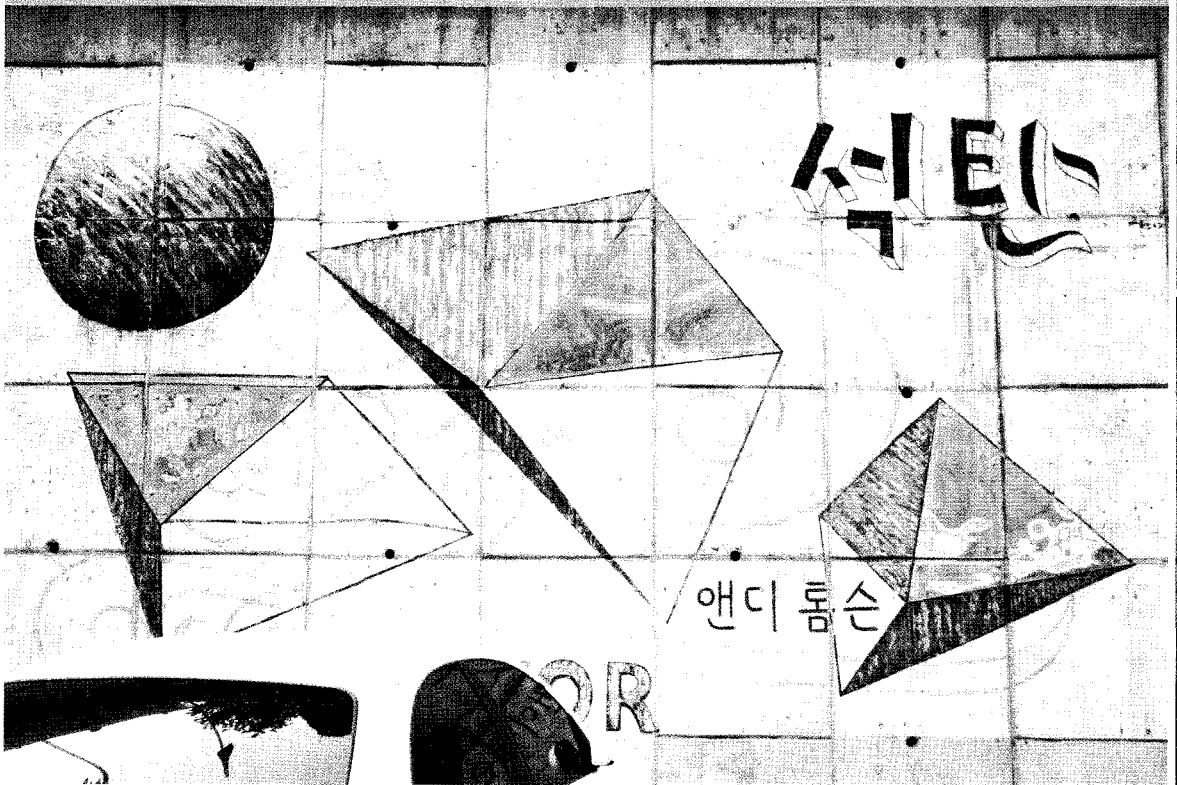
1960~70년대는 대한석탄공사 배지를 달면 장가갈 때 유세를 부렸으며 심지어 지나가는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다고 전해지는 철암. 석탄에너지가 석유·가스와 그 역할을 대체 하면서부터 철암지역의 탄광은 하나둘 문을 닫아 이제는 대한석탄공사 하나만이 남아 그 명맥을 잇고 있다. 한때 10만 이상이 북적이던 철암은 이제 고작 3만 여명만 남았고 상가와 사택은 텅 빈 채 퇴락해 갔다. 1930년대에 지어진 대한석탄공사의 선탄장은 지하갱도에서 파낸 원 석탄에서 잡석을 골라내는 대형 시설로 2002년 등록문화재 제21호로 등재돼 문화제가 되었다. 인근의 다른 탄광도시가 카지노·스키장 등 오락도시로 바뀌면서 고철로 뜯겨나간 것과 달리 철암의 선탄장은 아직도 현역으로서 부대시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이 작가들에게 검은빛 우금산을 등진 선탄장은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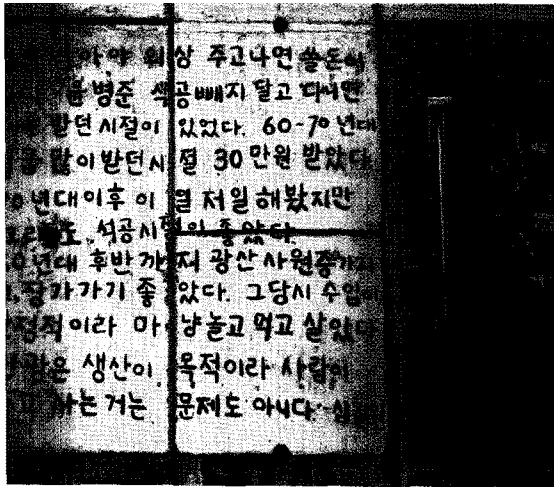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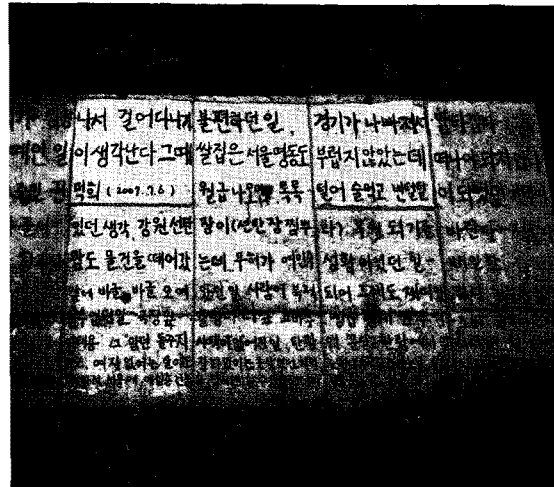
한글서체와 한글서체, not teacher's work



도도  
 단양  
 하는 것  
 난다 비  
 청암역 앞  
 석공에서  
 하지도 않는데  
 포크 음악과  
 사나 자만  
 열매 나무 열매



철암역 상가건물 벽에 그려진 벽화(배식진, 장성아, 이해인씨의 작품)  
고된 삶의 흔적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이들의 노력은 이제 또한 하나의 '문화'로 '예술'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적인 조형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한때 한 무리의 건축학자들이 몰려와 도시 전체를 완전히 보존시켜 박물관으로 만들자며 '빌리지움'을 꿈꾸기도 하였다. 산 중턱으로 우회도로를 내어 선탄시설은 물론, 철암천에 다라밭을 세워 걸터앉은 상가, 비좁고 들어갈만한 땅이라면 모조리 들어앉은 게막지 집들을 보존하여 관광 자원화 한다는 계획이었다. 계획적인 집짓기와 집수리 프로그램을 가동해 다섯 채에서 시범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그곳에도 이해타산이 맛물려 당장의 개발과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과 이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지역 공무원들과의 마찰로 2년 만에 손을 뗐다. "하다가 곧 지쳐 떠나고 말겠지 뭐" 하던 또 다른 서울내기들이 7년째 꾸준히 드나들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도 이들을 이곳의 선탄장과 같은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린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경영마인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근대산업시설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더군요. 우리의 활동은 현지인들과 공감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곳을 예술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할아텍 사람들의 말이다.

할아텍 회원들이 지난해 벽화를 그린 철암역전 맞은편 천변상가들은 도로확장을 위해 하나둘 뜯겨나갔고 아무렇게나 왔지만 그 맛이 오히려 마음을 울리던 역앞 식당도 하나둘 문을 닫았다. 이들이 한때 터를 잡고 일할 작업장으로 눈독을 들어왔던 삼방동 집도 허물어져 옥수수밭으로 변했다.

이곳 주민들은 버스를 타면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보고 눈인사 뿐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는 듯하다. 우리가 도시에서 느낀 삭막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후시나 외국에서나 느껴볼 수 있는 서로 양보하고 인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배어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버스에서 내리는 초등학생에게 운전기사 뿐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조심해서 길 잘 건너라고 말할 정도.

태백문화원에서는 할아텍 사람들과 함께 함태광업소 자리의 탄광체험관을 작가들의 작업장으로 꾸밀 계획이다. 철암역에 손님이 오든 않든 무심하게 앉아있는 한 역무원은 이들에 대해 "철암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같다."고 말했다. 철암역을 떠나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무궁화호가 이곳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태백역에서 버스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점이었으나 이러한 번거로움이 오히려 매력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활과 함께하는 예술이 있는 철암. 그곳에 가고 싶다.